

한마음과학원 교사를 위한
마음공부과정

얘들아, 불켜진 선생님 마음이 너희를 밝게 할 거야



'3일간의 실천보기' 토론에 열중하고 있는 공심팀 교사들.

#마음공부에 시간을 던진 선생님들

1월 12일 오전 10시. 어느새 방학도 중반인데 21명의 선생님들이 안양 한마음선원 국제회의실로 모여들었다. 1주일 전인 5일부터 시작된 '교사를 위한 마음공부과정'에 등록한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이 공부할? 그것도 마음공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출세에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마음공부 프로그램에 21명의 선생님들이 금쪽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한마음과학원이 5년 전부터 연구해 온 심성교육의 다양한 과정 가운데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선생님들, 도대체 선생님들은 어떻게 마음공부를 할까?

#누가 나를 묶었나요?

10시. 목탁이 길게 한 번 내려지고 선생님들이 조용히 합장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입장. '딱' 죽비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3일간의 실천보기' 시간. 지난주 토요일에서 어제(월요일)까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지난주의 주제였던 '믿고 맡기기'가 얼마나 잘 됐는지 발표하는 시간. 슬쩍 공생팀의 빈자리에 파고들었다.

"두 살 된 마음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 오랜만에 남편과 영화를 봤다. 전에는 몰랐는데 사소한 대화에도 매우 민감한 것 같다."

선생님, 엄마, 아내의 3역쯤은 기본이지만 그게 힘든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팔 이십이 한마음이라는 이 젊은 선생님도 가족과 직장, 집안 일 등이 삶의 기쁨이자 고통이라고 털어 놓는다. 그래서 이 공부과정을 거치고 나면 기쁨이 더 많은 삶이 될 것을 믿고 있다고.

"토요일(9일) 탐누스는 교원평가제였다. 안 그래도 나이 들며 조금씩 위축되는 느낌인데 걱정이 앞섰

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에게 믿고 맡기고 나는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될 것을 뭐 그리 걱정이야'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 연세가 많아 봐지 않는 이 선생님은 발표를 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신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들을 훈련소로 보내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그렇게 그렸다.

다른 팀들도 발표 열기가 뜨거웠다. 박수를 치는 곳도 있고 큰 소리를 지르는 팀도 있었다. 때무기처

궁극이라는 얘기가. 그렇지만 현재 자신이 교실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상태를 그럴 때는 답했다. 인성교육이 추구되고 교과교육이 커져 있다.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의 교집합 부분의 크기도 제각각 달랐다. 역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그린 그래프를 설명하는 토론 시간은 사뭇 진지했다.

"컴퓨터 그래픽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교과교육이 위주가 되죠. 기능 교육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처음엔 내가 저걸 해? 하다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자신

지도라는 현실 사이에서 좀 더 인간적인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뿔망치로 되돌려 넣는 내 망상

오후 과정은 흥겨웠다. 즐거운 놀이 속에 자성을 밝히는 뜨거운 촛불이 타오르는 시간이었다. 옛날 팔죽을 쑤는 수좌가 끓어오르는 팔죽 방울을 보면서 '요것도 문수지, 요것도 문수지' 하면서 팔죽 방울을 놀랐다는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응용한 놀이였다.

자신이 적은 자신의 번뇌와 고민 같은 등 소원 등등을 팀원들이 골고루 나눠 갖고 앉아 있다. 그리고 자신은 뿔망치를 들고 서 있다. 놀이가 시작되면 팀원들이 자신의 갈등 번뇌 소망 등을 외치며 일어난다.(두더지 잡기를 연상하면 됨) 뿔망치로 일어서는 두더지를 내리치며 '내가 하는 거잖아' '나은 곳으로 되돌아가라' '용광로에 넣으란 말야'를 외친다.

뿔! 뿔! 뿔!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실내는 왁자지껄 했다. 그러나 발표는 진지했다.

"이렇게 숫구치는 번뇌 망상들을 그때때 되돌려 넣으며 청정한 자성을 지키고 살면 교실에서 늘 행복할 것 같아요."

8회 동안 진행되는 교사를 위한 마음 공부과정은 믿고 맡기기, 지켜보기, 실천 공행하기, 참구하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한 선생님들은 "회를 거듭하면서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 학생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방법 등을 깨우치게 된다"며 "새 학기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인했다. 한 선생



참가 교사들이 각종 실천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마음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님이 보여주는 리플릿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다. '내 마음에 불이 켜지면 그대로 밝은 교실이 된다.'

글=임연태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한마음과학원 5년 전부터 심성교육 연구 인성교육 우선이고 공극, 그 안에 교과교육

럼 옮겨 다니며 발표 내용을 들어 봤다. 대부분이 지식과 남편, 아내, 집안 일, 학교 일을 주제로 발표하고 그 일들에 자신이 묶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누가 묶었을까? 역시 선생님들은 답했다. 자신을 묶은 것은 자신이란 걸 빨리 알아차렸으니까.

#심성교육, 그 꿈과 현실 사이

초등학생들에게 복식 호흡을 가르치면 학습능력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선생님으로부터 복식호흡법을 배우고 곧바로 다음 과정이 이어졌다.

'교과 지도와 인성교육' 교육현장의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한 주제다. 선생님들은 받아 든 종이에 그래프를 그렸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의 관계. 대부분이 인성교육이라는 원 속에 교과교육이라는 원을 그려 넣었다. 인성교육이 우선이고

감을 갖는 아이들을 보면 그 속에 인성교육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모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덕 교과라고 밝힌 한 선생님은 "인성교육을 실천"임을 강조했다. 고3 영어를 담당한다는 선생님은 "담임을 맡지 않으면 교과학습에 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은 달라요. 모든 게 인성교육에서 시작돼요. 인사하기, 뛰어나지 않기, 떠들지 않기, 남 얘기 끝까지 듣기 등 모든 생활이 인성교육이고 그걸 안 되면 수업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교실에 있어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좋은 자료가 있어도 다 적용할 수는 없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인성교육이라는 꿈과 교과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1개금불



1비취옥불



1백옥불



1대나무숯불



1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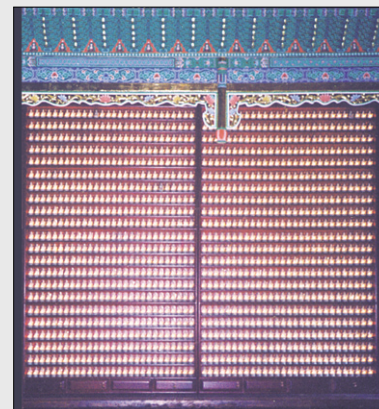
- 규격 : 소불 - 5저, 7저, 9저,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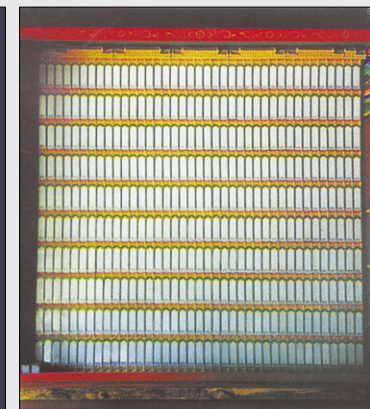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1LED 인등 (해남 대흥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1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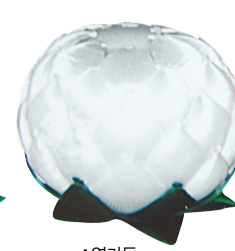
영가 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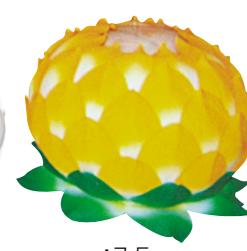
1광단등



1바리등



1영가등



1금 등